

<2014.11.27.~2014.11.28.>

金北日報

2014년 11월 28일 (금)
지역 10면

고창군, 생태지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

지도제작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군 전역 생태적 특성 5개 등급화

고창군이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해 비오톱(Biotope, 생태지도)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2013년 4월 전북 최초로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비오톱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의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생태지도(비오톱)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삵, 맹꽁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밭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등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약 7.7%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 또한, 607.73km²의 군 전역에 논, 밭 등 경작지가 약 46.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산림이 약 33.6%로 그 뒤를 이었다.

생태지도(비오톱)에서는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별로 보전해야 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지도 '비오톱(biotope)'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군에서 구축한 '생태지도(비오톱)'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하는 비오톱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한 자료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173 X 108 mm

고창군 '그린 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Green〉

비오톱지도제작 용역 보고 친환경지역개발에 '청신호'

고창군 비오톱(Biotope, 생태지도) 지도에 따르면 군지역에서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은 약 7.7%이며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도 약 2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창군 면적 607.73㎢중 논, 밭 등 경작지가 46.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산림이 33.6%로 그 뒤를 이었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지난 2013년 4월 도내 최초로 2억5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비오톱(Biotope, 생태지도) 지도 제작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는 2년여에 걸친 연구끝에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가졌



고창군은 27일 회의실에서 박우정 군수 및 관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오톱(Biotope, 생태지도)' 지도제작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고창군 제공

다.

생태지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형 주제도, 현존 식생현황,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어 향후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생태지도에 따르면 군 전역에 수달,

삼, 땀꿍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밭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전 지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

가치별로 구분, 보전해야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우수한 비오톱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을 보정 및 복원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바란다"면서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지도 '비오톱(biotop)'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를 일컫는 말이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220 X 139 mm

친환경 생태보존 지도 만든다

고창군 '비오톱' 제작 보고회 친환경 개발 기초자료 활용 생태계 다양성 유지 기대

고창생물권보존지역(BR)의 보존과 복원, 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비오톱(biotop)이 제작된다.

27일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해 비오톱(Biotop, 생태지도) 제작에 나섰다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13년 4월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비오톱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는 생태지도(비오톱)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삵, 맹꽁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밭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약 7.7%이고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비오톱에서 지적한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별로 구분해 보전해야 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생태지도 '비오톱(biotop)'은 'bio(생명)'와 'topo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군에서 구축한 '생태지도(비오톱)'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하는 비오톱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한 자료다.

지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형 주제도, 현존 식생현황,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우수한 비오톱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을 보정 및 복원하는 한편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생물다양성이 증진하기 바란다"며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고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l@

182 X 136 mm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기초자료 완성

고창군, 바이오툼 지도 제작 최종보고서 나와

고창군(군수 박우정·사진)은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난해 4월 2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바이오툼(Biotope, 생태지도)지도 제작 연구 용역에 착수, 최종보고서가 완성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27일 발표했다.

생태지도 '바이오툼(biotop)'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특정화된 지역의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군에서 구축한 '생태지도(바이오툼)'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 하는 바이오툼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다. 또한 지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형 주제도, 현존 식생현황,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고창군 전역에 수달, 삵, 맹꽁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밭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



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

등급 지역면적은 약 7.7%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

또한, 607.73km²의 군 전역에 논, 밭 등 경작지가 약 46.7%, 산림이 약 33.6%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생태지도(바이오툼)에서는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 별로 보전해야 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창=김병현 기자

com0912@sjbnews.com

“고창군 멸종위기동물 27종 서식”

고창군 생태지도 제작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친환경 개발 자료로 활용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을 위해 비오톱(Biotop, 생태지도)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군은 2013년 4월 전북 최초로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비오톱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의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생태지도(비오톱)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삥, 뺨박,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밭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약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을 위해 비오톱(Biotop, 생태지도)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7.7%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

또한, 607.73km²의 군 전역에 논, 밭 등 경작지가 약 46.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산림이 약 33.6%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생태지도(비오톱)에서는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별로 보전해야 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지도 '비오톱(biotop)'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 군에서 구축한 '생태지도(비오톱)'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하는 비오톱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한 자료다.

지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형 주제도, 현존 식생현황,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우수한 비오톱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을 보정 및 복원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바라며,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고창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고창=임동갑기자

212 X 196 mm

세계 최고 생태도시 고창군 '발돋움'

비오톱 지도제작 연구용역 보고회 친환경적 그린도시 기초자료 완성

고창군이 최고 생태도시임이 증명됐다.

27일 군에 따르면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을 위해 비오톱(Biotope, 생태지도)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생태지도(비오톱)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삵, 맹꽁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삼사화, 솔붓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약 7.7%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

607.73km²의 군 전역에 논, 밭 등 경작지가 약 46.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산림이 약 33.6%로 그 뒤를 이었다.

생태지도(비오톱)는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별로 보전해야 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 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지도 '비오톱(biotop)'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을 위해 27일 비오톱(생태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군에서 구축한 '생태지도(비오톱)'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하는 비오톱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한 자료다.

지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형 주제도, 현존 식생현황,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우수한 비오톱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을 보정 및 복원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바라며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고창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신약희기자/syhee6311@hanmail.net

229 X 144 mm



고창군, 생태도시 기초자료 완성

그린네트워크 구축비오톱 지도제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멸종위기 야생동물 27종 · 식물 4종 서식 상태 확인 성과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해 비오톱(Biotope, 생태지도)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군은 2013년 4월 전북 최초로 2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비오톱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의 최종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생태지도(비오톱)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삵, 땃쥐,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밭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약 7.7%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

로 조사됐다.

또한, 607.73km²의 군 전역에 논, 밭 등 경작지가 약 46.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산림이 약 33.6%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생태지도(비오톱)에서는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별로 보전해야 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지도 '비오톱(biotop)'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군에서 구축한 '생태지도(비오톱)'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하는 비오톱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한 자료다.

지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형 주제도, 현존 식생 현황,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27일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오톱제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고창지역 생태환경 한눈에 본다

그린 네트워크 구축위한 비오톱 제작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생태지도〉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해 비오톱(Biotope, 생태지도)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군은 지난해 4월 전북 최초로 2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비오톱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의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생태지도(비오톱)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삵, 맹꽁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붓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

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약 7.7%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

또한 607.73km²의 군 전역에 논, 밭 등 경작지가 약 46.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산림이 약 33.6%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생태지도(비오톱)는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별로 보전해야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 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

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지도 '비오톱(biotope)'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군에서 구축한 '생태지도(비오톱)'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하는 비오톱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한 자료다.

지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형 주제도, 현존 식생현황,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우수한 비오톱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을 보정 및 복원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바란다"며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고창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동현 기자

고창, 친환경 개발 위한 '생태지도' 완성

비오톱 지도 제작 최종 보고회... 야생 동식물 등 분포현황 도면화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을 위해 비오톱(Biotope, 생태지도)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군은 2013년 4월 전북 최초로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비오톱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의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생태지도(비오톱)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삵, 맹꽁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붓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약 7.7%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

한편 607.73km²의 군 전역에 논, 밭 등 경작지가 약 46.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산림이 약 33.6%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생태지도(비오톱)에서는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 별로 보전해야 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 지도 '비오톱(biotop)'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군에서 구축한 '생태지도(비오톱)'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 하는 비오톱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한 자료다.

지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형 주제도, 현존 식생현황,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우수한 비오톱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을 보정 및 복원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바라며,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고창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해 바이오툼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고창, 바이오툼 지도 제작 '시동'

연구용역 보고회...사업비 2억5900만원 투입 세계 최고 생태도시 건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해 바이오툼(Biotope, 생태지도)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군은 2013년 4월 전북 최초로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바이오툼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의 최종보

고치 자료에 따르면, 생태지도(바이오툼)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삿대, 멧꿩,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밭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약 7.7%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

또한 607.73km²의 군 전역에 논, 밭 등 경작지가 약 46.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산림이 약 33.8%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생태지도(바이오툼)에서는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별로 보전해야 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바란다"며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고창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고창, 비오톱 지도 제작 보고회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기초자료 완성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해 비오톱(Biotope, 생태지도)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군은 2013년 4월 전북 최초로 2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비오톱 지도' 제작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의 최종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생태지도(비오톱)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삵, 맹꽁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 상사화, 솔밭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

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약 7.7%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

또한, 607.73㎢의 군 전역에 논, 밭 등 경작지가 약 46.7%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산림이 약 33.6%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생태지도(비오톱)에서는 군 전역을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별로 보전해야할 곳(1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2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3등급), 부분적 보전지역(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 등 5개의 등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지도 '비오톱(biotop)'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군에서 구축한 '생태지도(비오톱)'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하는 비오톱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한 자료다.

지도에는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형 주제도, 현존 식생현황,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우수한 비오톱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을 보정 및 복원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바라며,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고창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신상수 기자

고창군, 생태지도 '비오톱' 제작

기사등록 일시 : [2014-11-27 15:55:18]

【고창=뉴시스】김종효 기자 = 군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인 전북 고창군이 복합적 생태보전과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해 '생태지도'를 제작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2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에 의뢰했던 생태지도 '비오톱(Biotope)' 제작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대 김창환 교수가 공개한 생태지도에 따르면 수달과 삵, 맹꽁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붓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등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고창군 전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지도는 이와 함께 군 전역을 ▲1등급 보전해야 할 곳 ▲2등급 생태적 개발이 가능한 곳 ▲3등급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개발구역 ▲4등급 부분적 보전지역 ▲5등급 개발 가능 지역 등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해 향후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절대 보전이 필요한 1등급 면적은 약 7.7%, 생태계 보전이 우선돼야 할 2등급은 22.7%로 조사됐고 607.73㎢인 경작지가 약 46.7% 산림이 33.6%로 뒤를 이었다.

공개된 생태지도와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화돼 향후 군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교육 및 생태관광,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의 보전·복원·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기초자료가 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의 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해 제작된 생태지도가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eun6685@newsis.com



전국 > 전북

고창지역 생태환경 한 눈에...27일 '비오톱' 제작 발표회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4.11.27 15:20:38 송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생태지도(비오톱·Biotope)가 제작됐다.

고창군은 27일 복합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해 군청 회의실에서 비오톱 지도 제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생태지도 '비오톱(biotop)'은 'bio(생명)'와 'topes(장소)'의 합성어로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 지도다.

군은 지난해 전북 최초로 2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비오톱 지도'제작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창환 전북대 교수는 "생태지도(비오톱) 조사 결과 군 전역에 수달, 삵, 맹꽁이, 큰고니, 매 등 27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진노랑상사화, 솔붓꽃, 가시연꽃, 각시수련 4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창군 내 조류 183종, 포유류 29종, 양서·파충류 32종 어류 42종 등 총 28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약 7.7%로 나타났으며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2등급 지역면적도 약 22.7%로 조사됐다.

이번에 제작된 '생태지도'는 생태적 속성과 가치를 달리하는 비오톱을 구분해 도시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비오톱 자료는 고창지역의 환경을 보정 및 복원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실용성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명품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